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일본 투자자 면담 등 결과

-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일본 공적연금(GPIF) CIO 면담
- 미쓰비시 UFJ 자산운용, 레조나 자산운용 등 주요 투자자 면담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전(前) 금융위원장)는 3.31(월)~4.1(화) 일본 동경을 방문하여, 금년 11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주요 일본 투자자들에게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점검하였다.

*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

먼저, 최 대사는 세계 최대규모 연기금이며 WGBI 추종 자산 규모도 큰 일본 공적연금(GPIF*) 총운용책임자(CIO)를 만나, 국채 비과세 절차 간소화, 국채통합계좌** 도입,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국채투자 관련 제도 개편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GPIF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속도와 범위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양 측은 일본 투자자들의 제도 개선 수요 반영 등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 일본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운용 자산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연기금

** 자산 운용사 등이 하위펀드를 대신해 거래를 일괄 처리하는 옴니버스 체계 도입

또한, 최 대사는 미쓰비시 UFJ 자산운용 대표 및 레조나 자산운용 CIO 등 주요 투자자들도 만나,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 국채 투자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일본 투자자들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한국 국채 투자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장의 개방성이 지속 확대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 대사는 금번 일본에서의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본·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노력에 대한 일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11월 한국의 WGBI 실제 편입전까지 글로벌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해 국채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책임자	단 장	유창연 (044-215-7724)
		담당자	서기관	김종현 (044-215-7720)
			사무관	유경화 (helen1212@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하다애 (daae0517@korea.kr)

